

Supplementary 2. 초록 작성의 실례

BACKGROUND: 그동안 통증 사정이 상급 수준 IV 신생아 집중치료실(NICU)에서 주관적 통증 평가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통증 평가 보고가 부적절하였다. 이 연구는 다차원 신생아 통증 및 진정 평가 도구를 구현하여 통증 평가 보고의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이다. 이 연구는 대도시 소아병원의 NICU (60병상)에서 수행되었다. 참가자는 간호사, 신생아 전문간호사, 임상전문 간호사, 약사, 신생아 동료 및 신생아 전문의 및 NICU 직원이 포함되었다.

METHODS: 이 프로젝트에서는 질 개선을 위한 PDCA 방법이 사용되었다. 기초 평가를 위해 중재 6개월 전 의무기록 검토가 포함되었다. 입원 시 통증 평가 기록, 일상적 통증 평가, 통증 점수 상승 후 통증 재평가, 다학제적 라운드에서의 통증 토론, 통증 평가 문서를 검토하였다. 신생아 통증 도구를 확인하기 위해 문헌 검색 및 listserv 쿼리를 수행하였다.

INTERVENTION: 신생아 통증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 신생아 통증의 확인 및 치료와 관련된 현재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. 다차원 신생아 통증 도구인 Neonatal Pain, Agitation, and Sedation Scale (N-PASS)가 선택되었다.

RESULTS: NICU에서의 N-PASS에 대한 사용 교육 후 6개월 및 2년 후, 모든 입원 환자의 의무기록 검토가 시행되었다. 입원 시 통증 평가 기록, 일상적 통증 평가, 수술 후 통증 재평가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. 통증 점수 상승, 다학제적 라운드에서 통증에 대한 논의, 의료 경과 기록에 통증 평가 문서화. 통증 점수의 문서화는 6개월에 60%에서 100%로 향상되었고 N-PASS 구현 후 2년 동안 99%를 유지하였다. 지속적인 간호 평가를 통한 통증 점수 기록은 개입 후 6개월 및 2년에 55%에서 90% 이상으로 개선되었다. 상승된 통증 점수의 중재 후 통증 평가 문서는 N-PASS 사용 전 0%였으나 6개월 후 30% 및 2년 후 47%로 개선되었다.

CONCLUSIONS: 다차원 신생아 통증 평가 도구인 N-PASS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병동의 통증 기록을 개선하였다. 모든 질 향상 모니터의 개선이 언급되었지만 몇 가지 주요 영역, 특히 높은 통증 점수에 대한 중재 후 통증 재평가 문서화에 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.

Keywords: Neonatal pain, Agitation, and sedation scale, Neonatal pain, Pain score, Quality improvement